

# 물난리 나흘만에...광주 남구 또 폭우 '비상'

### 응급 복구 막 끝났는데... 시간당 최고 40mm 장대비 침수 피해 상가 주민들 한숨 남구는 비상대기 근무 돌입

"이제 겨우 응급 복구 작업을 끝냈는데 또 많은 비가 내리다니 정말 막막하네요." 광주시 남구 백운고개로 인근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정선진(여·50)씨는 30일 오전 비 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이후 비가 그치자 정씨는 겨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지만 31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최근 폭우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데, '앞전데 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정씨의 인테리어 가게는 지난 27일 시간당 최고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됐다. 도로 우수관 입구가 오물로 막혀 빗물이 역류해 가게를 덮친 것이다. 정씨는 "밖에 보관해둔 타일도 흙탕물에 오염돼 폐기 했다"며 "29일까지 가게 복구에만 매달려 겨우 문을 정도로 복구했는데 또 집중호우가 내리다니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광주-전남에 쏟아진 물 폭탄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폭우가 내리자 나흘만에 100mm를 웃도는 집중호우가 예고되고 호우특보(3시간 강

우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번 피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도로 배수구 막힘현상을 해소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우수관 교체 등 하수도 관리만도 했어도 비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 황모(58·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는 "특히 이번 침수피해는 상가에서 많은 피

해가 발생했는데 상가의 경우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로 배수구에 쌓인 낙엽과 생활 쓰레기만 치웠어도 침수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상가 91곳, 주택 35채, 차량 침수 34대, 저수지 범람 2건, 농경지 8ha 등 모두 25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 중 담장 붕괴 등 2-3건 피해를 제외한 대부분 복구 작업을 마쳤다.

남구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31일 시간당

최대 40mm이상의 장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갔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백운고가 일대 대남대로에 발생한 침수는 시간당 60mm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대남대로에 설치된 하수박스관 통수량(50mm)의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빗어진 현상"이라면서 "이번에 침수된 지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앞으로 들어설 도시철도 2호선 구간과 겹쳐 당장 공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5·18행불자 찾기 해외 연대 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UN '세계 실종자의 날' 아시아지역 행사에 참가한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 이기봉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실종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5·18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5·18 행방불명자 실태를 해외에 알리고 아시아인권단체와 연대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4    해질 19:01    달돋이 21:52    달질 10:12

집중호우 조심하세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마루가 휴일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 비	24/29	보성	흐리고 비	24/28
목포	흐리고 비	25/29	순천	흐리고 비	25/29
여수	흐리고 비	25/28	영광	흐리고 비	25/28
나주	흐리고 비	24/29	진도	흐리고 비	25/29
완도	흐리고 비	25/30	전주	흐리고 비	24/27
구례	흐리고 비	23/28	군산	흐리고 비	23/27
강진	흐리고 비	24/29	남원	흐리고 비	23/27
해남	흐리고 비	24/29	홍산도	흐리고 비	24/28
장성	흐리고 비	23/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면바다 남~남서	1.0~1.5	남~남서	1.0~1.5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서부	면바다(동) 남서~서	1.0~1.5	남서~서	1.0~1.5
서부	면바다(서) 남서~서	1.0~1.5	남서~서	1.0~1.5

◇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보통: 자외선
- 좋음: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12 22:28	05:02 17:25
여수	간조	만조
	05:32 17:44	05:35 17:44

◇ 주간 날씨

9/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	☁	☁	☁	☁	☁	☁
23/28	23/32	24/30	24/31	23/31	22/31	22/30

## 전남도교육청 9월부터 온라인 공동수업

학생이 적어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과목을 다른 학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고교 공동교육과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운영된다. 순천여고-해남고 등에 구축된 스튜디오에서 선택과목을 교사가 진행하면 농어촌 교실들이 컴퓨터실에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1년여간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등 준비를 마치고 2학기부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실제 교실을 온라인으로 옮긴 방송 통신수업 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방식이다. 해남고(과학 거점학교)에서 화학 1, 순천여고(사회 거점학교)에서 경제, 법과 정치 과목 수업을 원격 교사가 진행한다. 올 9월 개강 전 제 2외국어 포함 온라인 수업 과목수가 10여개로 늘 수 있다. 수강생 선발은 도소재 학생, 농어촌지역 재학생, 도시재학생 순으로 한다. 학생들은 다니는 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수강하게 된다. 문의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팀 061-260-0325.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경찰청 9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광주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 무기류 일체다.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차량 5대중 1대 타이어 정비 불량 운전자 절반은 적정 공기압 몰라

### 여름 휴가철 차량 점검 결과

본인 차량의 타이어 상태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았다. 타이어 3사가 안전점검과 병행해 운전자 857명을 대상으로 타이어 사용·관리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3명(28.4%)은 공기압 점검을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고 본인 차량의 적정 공기압을 모른다는 운전자는 절반(54.1%)을 넘었다. 타이어협회 관계자는 "공기압과 마모상태, 외상 점검은 타이어의 필수 점검사항"이라며 "운행 전 타이어를 수시로 살펴보고 자동차정비소와 타이어매점 등을 방문할 때마다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광주시 "아웅산 수치 명예시민증 취소 검토"

### 시의회·인권전문가와 논의

'아웅산 수치 광주인권상 당장 박탈하라'는 제목의 보도(광주일보 2018년 8월 30일자 7면)와 관련, 광주시가 30일 광주 명예시민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한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에게 수여된 광주 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지자 지난 2월 인권 전문가, 외교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국제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상황을 주시했다. 지난 3월에는 윤장현 전 시장 명의로 아웅산 수치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지난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시장, 시의원들이 바뀌며 논의가 중단됐다. 오는 10월 예정된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도 현재까지 로힝야족 인권 문제를 거론할 계획은 없다. 지난해 포럼에서는 아시아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미얀마 문제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27일 UN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이 사실로 드러나고 미얀마 정부는 이를 방관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아웅산 수치의 광주 명예시민증 취소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인권협력관실 관계자는 "UN인권이사회의 진상조사단이 보고서를 발표한 만큼 이를 토대로 아웅산 수치의 광주 명예시민증 취소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제인권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을 통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웅산 수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아웅산 수치에게 수여한 '엘리 위켈 상'을, 영국 옥스퍼드시, 에든버러시, 아일랜드 더블린시가 각각 명예시민권을 박탈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